

3. 삶을 계획하기

나의 삶에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 있나요? 혹시나 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거나, 잘못된 연합 가운데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봅시다.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4.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거짓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 11:9]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1월 30일

무너진 바벨탑을 쌓지 말자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252장
- 성경읽기 : 창 11:1-9 (구약 13면)
- 말씀나눔 : 무너진 바벨탑을 쌓지 말자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본문 11장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다고 하지만, 10장 5, 20, 31절을 보면 이미 인간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1절에서의 하나의 언어는 현재의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언어로 연합체를 구성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교만), 둘째 흠어지는 일을 예방하는 것(불순종)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옳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흠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은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명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사람의 생각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 줌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탑을 세워 자신들의 실력과 업적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과시욕이며 최악의 교만이었습니다. 바벨탑의 '바벨'은 '혼란'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교만으로 세운 바벨탑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며, 연합이 아닌 혼란을 가증시키는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심판하신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흠어지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1. 말씀 관찰

1)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a절)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이 시기에 사람들은 연합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연합하기 힘든 존재인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탑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창 11:4)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 올리면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2)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흠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4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성도가 한몸처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선을 향한 연합이 아닌 악을 향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나 악한 모임은 하나님이 흠으실 것입니다

2. 말씀 적용

1) 우리 주변에 높이 올라간 바벨탑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봅시다.